

상황1.

장소) 어느 젓소농장 가정의 집 거실

부, 모.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다. 이 때 아들이 웃음소리에 이끌려 거실로 나와 티비 앞에 앉는다. 함께 티비를 보며 깔깔깔
(배우들 애드립)

자: 아 맞다. 아버지. 저 이번 금요일 토요일 농장을 좀 비워야 할 거 같아요. 좀 힘드시더라도 이틀만 고생해주세요.

부: 뭐? 이번 주말? 너 또 어디 가는데 그러냐?

자: 이번에 4-H 행사 일정이 1박2일로 잡혔거든요. 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정보 좀 얻어서 오려구요.

모: 아이고.. 희성아 . 지금 그런데 다니는 게 중요하니? 네가 농장을 비우면 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.. 안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질 않은데..

부: 그래! 그거 별로 중요 한 거 아니면 쓸데없이 농장 비워가면서 시간 쏘지 마라. 그것도 이틀씩이나..

자: 에이. 아버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요. 다 우리 농장을 위해서 가는 거 예요. 제가 열심히 활동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

부: 당신 티비 좀 꺼봐. 너 그 예전에도 4-H 모임인지 뭔지 간다고 몇 번이나 농장 비우고, 지난번엔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소들 굶긴 거 기억 안나냐? 대체 소 키우는 놈이 소 밥 주는 것도 잊어 가면서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어찌라는거냐?

자: (조금 맘이 상했음) 아니.. 아버지는 왜 또 지난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... 그 땐 아버지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셔서 그랬던 거였잖아요. 제

가 분명히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했는데. 그럼 아버지가 소 밥은 주셨어야죠.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장님이랑 술 드신다고 애들 밥 안주셔놓고는.. 저 한테 그러세요..

부: 이놈아.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했지 언제 네가 밤 열시나 돼서 들어온다고 했냐. 소 밥 때는 들어올 줄 알았지.

모: 아휴. 희성아빠. 뭐 지난 일을 또 얘기하고 그래요. 지금 얘기한다고 뭐 그 때 안 먹은 밥이 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. 끝난 일이니까 그건 그만 얘기하고. 그것보다 희성아 그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니? 내 생각엔 굳이 때마다 그거 쫓아다닐 필요는 없을 거 같다. 여태까지 다닌 것만으로도 족해.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농장 일 소홀히 하지 말고 이번 행사는 안 가는 걸로 해라. 거기 간다고 애들 사료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. 안 그러니?

부: 그래. 네 엄마 말이 맞다. 그리고 주말에는 외양간 청소 좀 한번 할 참이었어. 하도 청소한지 오래 되서 더러워 죽겠다. 네가 주말마다 나가는 통에 여태 미뤘는데 이번 주엔 해야지.

자: 아빠. 외양간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4-H 활동이 농장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. 물론 농장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농장 운영자들 만나서 그 쪽 농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장 운영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건 어떤 건지도 들어보고 해야 우리 농장도 더 발전하고 더 성장 할 수 있지 않겠어요? 발전 가능성을 찾는 건 좋은 거잖아요! 게다가 전국적으로 모이는 행사라 거기 참여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거예요. 외양간 청소 하는거 보다 훨씬 중요하да구요.

모: 아이고.. 참..

부: 대체. 소 키워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소 밥 주고 돌보는 것 보다

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냐. 소 밥도 제대로 못 줘가면서 발전은 무슨 발전이냐?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저 소들을 잘 키우는 것이지!

자: 제가 매일 같이 농장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인데 아버지가 좀 도와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? 솔직히 제가 농장일은 거의 다 맡고 있고 제가 그 활동으로 가끔 비울 때만 해주시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하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? 청소는 두 분이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. 꼭 이번 주가 아니어도 되고.

부: 이놈아! 너 없이 우리 둘이서 그 큰 외양간을 어떻게 청소하냐. 그리고 청소 때문만 이러는 게 아냐. 앞으로도 그 활동 때문에 농장을 비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. 대체 생업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냐. 이제 그 활동도 좀 줄여서 적당히 하도록 해. 네가 농장을 비우면 아주 힘들어요.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농장 일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. 너도 나이 들어 봐라. 몸이 내 맘 같은지. 젊다고 아주 쉽게 말을 해요. 지 엄마아빠 고생 하는 건 생각 안하고.

자: 아니.(어이없고 답답하여 말을 더 이상 못함.) (밖으로 나가 버린다.)

상황2. 벼농사 집안에서 벌어지는 자식의 경제력 독립에 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.

장소) 거실 쇼파.

부(신문을 보고 있다) 모(뜨개질 하고 있다) 자식 부모에게 할 말이 있어 무대로 들어온다.

자: 엄마. 봄에 무슨 뜨개질이야?

모: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떠놔야 내가 겨울에 입을 거 아니냐~

자: 우와~~이거 그럼 내거야? 이야~~ 역시 우리 엄마 밖에 없네~ (어깨를 주무르며 부모 눈치를 본다)

모(아들의 애교에 기분 좋음)

자: 저기... 엄마, 아빠 나 할 말이 있는데.

모: 뭐?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오징어처럼 베베 꼬아대냐.

자: (어깨 주무르던거 멈추고 옆에 앉는다)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... 곧 있으면 가장이 될 텐데 결혼하기 전에 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.. 경제적으로.. 그래서 말인데.. 논 일 하는 거..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 밑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집 뒤에 작은 논은 그냥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해서. 아니면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 있게 월급을 주거나.. 솔직히 지금처럼 내가 막연히 일을 하면 일 능률도 안 오르고 목표도 뚜렷해지지않고. 그래야 나도 앞으로 계획적으로 내 살림도 꾸리고 할 수 있을 거 같아.

부,모: (표정이 어두워졌다.)


모: (뜨개질 실 내려놓고)새아기가 그러라고 하든?

자: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~~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.. 사실. 나도 내 몫이 확실히 주어져야 일도 더 재밌고, 더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 까 해서 그러지. 물론 내 몫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는 건 아닌데.. 언제까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일일이 말해서 돈을 타서 쓸 수는 없잖아. 이번에 결혼 준비 하는 것도 그렇고.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귀찮고 번거롭잖아.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괜히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. 언젠가 독립은 해야 하는 거고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거 같아. 이제 한 가정의 가정이 될 텐데.

부: 흠....뭐.. 네 뜻은 알겠지만. 아직 네가 독립을 하기엔 모르는 게 너무 많아. 말이 좋아 독립이지. 네가 독립할 능력이 됐으면 우리가 왜 안 해 줬겠냐. 농사짓는 것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. 네가 집 뒤에 논을 갖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. 그게 무슨 독립이냐. 독립을 하려면 적어도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거지. 아직 벼농사에 대해 배울 것도 많은데. 아직은 논을 너 한테 맡길 만큼은 아니야. 너한테 논 내 주는 거 우리도 생각 안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. 그리고 월급은 무슨.. 네가 직원이냐? 자식이니까 자연스럽게 너도 농사짓고 물려받고 하는 거지.

모: 그래. 아직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뭘 그리 독립을 못해서 안달이냐. 네가 쓸 거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...막상 결혼해서 살다보면 돈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야. 그냥 부모님이 주실 때가 좋았다 할 거야. 평소엔 그런 말 없던 놈이 장가간다고 갑자기 안하던 소릴 하네...쫓(못마땅하고 서운하다)

자: 엄마. 내가 갑자기 장가간다고 이러는 건 아니야. 솔직히 내 나이 서른셋인데 아직도 일정한 수입이 없이 산다는 건 불안한 거잖아. 마음대로 자산을 운용을 할 수도 없고 인생 계획을 세우기도 막막하고.. 사실 오



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서운해 할 거 같아서 말 못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니까 적당한 때 인거 같아서 말 하는거야.

부: 그래도 아직은 일러. 너는 33살이라고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이만 먹었지 아직 네가 벼농사에 대해서 뭘 아냐. 우리 도움이 아직 필요해. 결혼해서 아이 생기고 독립해도 늦지 않아. 그 때까지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잘 배워뒀다가 독립하든지 해라.

모: 그래.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독립 어찌고 하니.. 솔직히 서운하다.

자:(기운 빠짐. 답답함.)



상황3. 배 농사 가정에서 배 수확 시기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의견 차이로 벌어지는 갈등

장소) 집 거실로 가족 모두 외식을 마치고 들어온다. (배우들 애드립)
모두 배부른 듯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.

자: 아버지. 이번엔 배 수확을 좀 일찍 하죠. 두 번에 ~

부: 응? 그게 무슨 소리냐? 하던 대로 세 번에 해야지~

자: 작년에 보니까 아무래도 두 번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따는 거 늦추니까 배들이 영성한게 없었잖아요.

모: 그래도 배가 크기가 실해야지. 두 번에 다 따버리면 크기가 별로 안 커서 상품가치가 떨어져.

부: 그래. 맞다. 여태 세 번에 수확해서 잘 해왔는데 갑자기 수확시기를 바꾸자고 그러냐?

자: 크기도 중요하긴 한데 배 커지길 기다렸다가 따려고 늦게 따니까 저장했다 꺼내고 보면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많은 거 같아요. 작년에 무르기도 많이 물렸고 바람 든 것도 많았고. 그러면 배 큰 거 많이 수확하는 거보다 오히려 손해인거 같아서요. 버리는 애들이 많으니 손실이 크잖아요.

부: 무르고 바람 든 게 그렇게 많았나? 그래도 배가 작으면 잘 안 팔려. 제 사상에 올릴 때도 크고 좋은 놈 올리지 작은 건 선물로도 안 사~!

모: 네 아버지 말이 맞다~왜 안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 갑자기. 세 번에 따 하던 대로

자: 왜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안하세요?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바꾸려고 시도라도 해 봐야죠.

부: 너 세 번에 따는 게 힘들어서 그러냐? 두 번에 끝내버리고 싶은 거야?

자: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여태 세 번에 해 왔으니까 한번 정도는 두 번에도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자나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에 하는 게 손실이 더 크면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세 번에 하면 되는거고....

부: (아들의 말을 끊으며) 그래그래. 무슨 말 인진 알겠다.

자: 또 말을 끊고 그러세요.(사이) 제가 그렇게 못미더우세요?

부: 그건 또 무슨 소리냐?

자: 아니. 아버지 하시는 행동이 아무래도 그런거 같아서요.

모: 희성아 너 왜 그런생각을 하고 그래?


자: 저도 대학가서 배운 게 있고 기본 지식이 있다구요. 제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.. 저 번에도 그렇고 왜 매번 제 말은 다 무시하세요?

부: 뭐? 내가 또 언제 너를 무시했어?

자: 지난번에도 교수님께서 알려 주신대로 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 듣지도 않으시더니 김 회장님이 같은 거 말씀하시니까 얼른 그대로 하셨잖아요. 그런 것 들이 저를 무시하시는 거라구요.

부: 그때는 네 말을 잘 이해를 못 했으니까 그랬고 김회장이 설명을 잘 해줬으니 그렇게 해보았던 거지.

자: 아버지가 제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셨잖아요! 아버지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고 문제점만 생각하시잖아요.



부: 그건 이눔아. 네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배워가는 시기이니까 그렇지.
너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.

자: 저도 농대 졸업 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도 충분히 했다고요. 근데
이렇게 제 의견은 다 무시하시고 아버지 고집대로만 하실 거면 왜 농대
가라고 하셨어요? 하.. 됐어요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. 저 나가요.

아들. 나가버린다.

모: 희성아 밤 늦게 어딜가니?

부: 내버려둬!

끝

